10.18219/ddmh..115.202109.113

石亭 李定稷의 著述『蘇詩註選』研究

白丞鎬*

Ⅰ. 서론
Ⅱ.『蘇詩註選』의 구성과 체계
Ⅲ.『蘇詩註選』의 특징과 성격
Ⅳ.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石亭 李定稷의 저술『蘇詩註選』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와 소개의 성격을 띤 글이다.『蘇詩註選』의 구성과 체계를 정리하여, 이 책이『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를 모본으로 하여 주석을 중점적으로 초록한 성격의 책임을 밝혔다. 다만 책의 편차와 내용 구성을 고려할 때, 李定稷이 모본에 해당하는 책을 부분부분 다른 시기에 입수하여 주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초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시 이해를 위한 類書로서 시가 아니라 주석을 중심으로 초록하였다. 李定稷은 시학 연구 과정에서 모본이 되는 원서를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이해하고 재편집하여 새로운 저술을 편찬하였다. 그는『律髓刊誤精選』에서 方回의『瀛奎律髓』, 紀昀의『瀛奎律髓刊誤』의 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평"을 초록하여『律髓刊誤精選』을 편찬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저술 방법으로『蘇詩註選』은『分類東坡先生詩』주석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분문 아래 초록하여, 시 이해를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 놓은 筆記 내지 類書의 성격을 지닌 저술이 되었다. 李定稷은 평소 시를 엄밀하게 분석적으로 이해하였는데, 詩法에 대한 관심, 두보시에 대한 치밀한 이해 추구 경향이『蘇詩註選』에서 보인다. 그는 본인의 관점을 세우고 제가의 설을 두루 참조하는 과정에서『蘇詩註選』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학 연구 방법론은「六絕義解」에서 언급한 "遞相祖述과 轉益多師"의 과정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창작학과 부교수

주제어 : 李定稷, 石亭,『蘇詩註選』,『律髓刊誤精選』,「六絕義解」,『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

Ⅰ. 서론

李定稷(1841~1910)의 字는 馨五이고 호는 石亭 또는 燕石이며 본관은 新平이다. 그는 19세기 후반 전라도 全州와 金堤 지역에서 활동했던 문인으로 李沂 · 黃玹 등의 명사와 교유하였다. 1868년(28세) 연행을 다녀왔고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 농민들이 그의 전주 집을 불태우는 바람에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그 이후의 것들이다.[1] 1923년에『石亭集』7권 3책이 鉛活字本으로 간행되었다. 이밖에『燕石山房未定稿』(문 9권 별집 문고 2권, 시 5권)가 김제문화원에서『石亭 李定稷 遺藁』라는 제목으로『燒餘錄』(1책),『傳家錄』(1책)을 포함하여 번역, 공개되었고,『刊誤精選』(2책),『蘇詩註選』(4책),『成唐正音』(1책),『作家指南』(1책),『尺牘易知』(1책),『尙書大全』(1책),『詩經日課』(2책) 등의 저술이 현전한다. 李定稷은 미술사학계에서 서화가로 일찍부터 주목받았고, 칸트와 베이컨에 관한 글이 있어 철학 연구자들도 관심을 가졌다. 그의 문학에 대해서도 근래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

이 논문은 李定稷의『蘇詩註選』의 서지적 사항을 정리, 소개하고, 저술의 의의와 성과를 조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書名은 비록 蘇東坡 시의 註釋을 초록한 책이라는 뜻을 지녔지만, 李定稷 詩學의 方法論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李定稷의 '著述'『蘇詩註選』에 대해 그 母本이 되는『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이하『分類東坡先生詩』로 지칭함)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그의 여타 저술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 책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1) 李定稷의 생애에 대해서는 최영성,「石亭 李定稷 유고 해제」(『한국사상과 문화』1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319~340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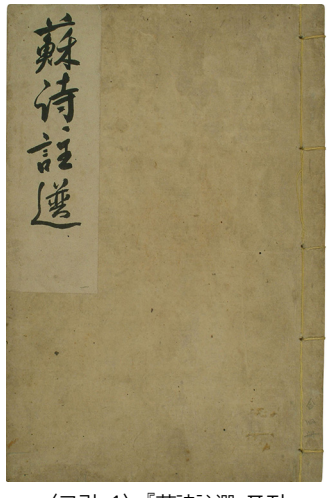
2) 국제어문학회에서 2008년 3월 15일에 石亭 李定稷의 학문과 예술 세계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성과로 다음과 같은 논문이 출간되었다. 구사회,「石亭 李定稷의 논시시 연구-〈희위이십사절구〉를 중심으로」,『국제어문』43, 국제어문학회, 2008; 심경호,「石亭 李定稷과『詩經』」, 위의 책; 박은정,「石亭 李定稷 文論 재고-법 인식을 중심으로」, 앞의 책; 김영은,「石亭 李定稷의 史論 산문 고찰-주제 의식을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2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4.

Ⅱ. 『蘇詩註選』의 구성과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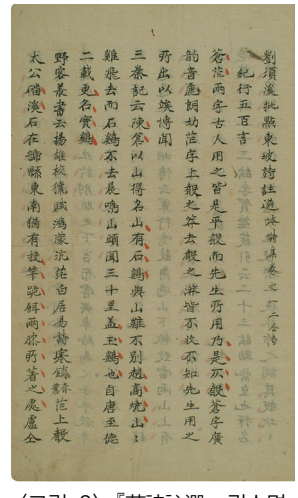
『蘇詩註選』은 王十朋의 分類東坡先生詩 계열의 東坡詩 선집을 모본으로 하여 그 분문을 따라 주석을 선별하여 초록한 저술로 필사본 12권 4책이다. 형태사항은 10행 24자, 무계, 책 크기 27.3*18.2cm이다. 표제는 “蘇詩註選”이고 권수제는 “劉須溪批點東坡詩註選”이다. 卷首題 아래에 약간 작은 글자로 “本詩集卷之○○……”이라고 『分類東坡先生詩』의 몇몇 권에서 주석을 초록하였는지 밝히고 있다. 朱墨으로 圈과 批가 곳곳에 표기되어 있다. 다만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찬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표 1〉『蘇詩註選』 편차

1책(2권)	2책(3권)	3책 (3권)	4책(4권)
劉須溪批點東坡詩註選	本詩集卷之五六合弓	本詩集卷之九十合弓	
(이하 권수만 표기)	釋老	池沼	本詩集卷之十九
本詩集卷之一二合弓	寺觀	橋梁	酬答
紀行 五百言	塔	樓閣	
述懷	節序	亭榭	本詩集卷之二十二
	夢	園林	送別
本詩集卷之三四合弓	月	果實	
宮殿		燕飮	本詩集卷之二十三
省宇	本詩集卷之十七八合弓		遊賞
墳塋	懷舊	本詩集卷之十五	
居室	尋訪	投贈	本詩集卷之二十五
堂宇	酬答	戲贈	雜賦
城郭			謫居
壁塢		本詩集卷之十六	題詠
田圃	本詩集卷之二十二十一合弓	簡寄	卜相
宗族	惠貺	懷舊	傷悼
仙道	送別		絕句
釋老			歌
			行
			絕句



〈그림 1〉『蘇詩註選』표지



〈그림 2〉『蘇詩註選』 권수면

卷首題에서 밝힌 “劉須溪 批點”이라는 문구와 卷首題 아래 주제별 분문의 일치 여부로 미루어 볼 때,『蘇詩註選』의 母本은 王十朋이 집주하고 劉辰翁이 비점을 단『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로 귀결된다.[3] 권이 시작되는 면에서는 분문의 제목을 ‘紀行’과 같이 표기하였지만, 동일하게 권 안에서『分類東坡先生詩』의 권수 및 분문이 바뀔 때에는 書眉에 ‘省宇’ 와 같이 써서 분문을 표기하였다. 분문뿐만 아니라 권수제 아래 ‘本詩集卷之○○……’하고 권차를 표기했는데, 이 권차가 朝鮮 刊本『分類東坡先生詩』의 권차와 분문 모두 일치한다. 참고로 朝鮮 刊本『分類東坡先生詩』의 판본은 다음과 같다.[4]

1) 15세기 후반 갑진자본(4책 영본, 만송문고 소장)
2) 15세기 후반 갑인자본 등 갑인자본 계열 (5책 영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등)
3) 선조 연간 목판본 등 갑인자 번각본 계열(12책 영본, 만송문고 소장)
4) 17세기 초엽 훈련도감자본(8책 영본, 만송문고 소장 등)

---

3) 조선시대 간행된 소식 시집 판본에 대해서는 당윤희,「조선간 소식 시집 판본 소고」,『중어중문학』 45, 한국중어중문학회, 2009 참조. 劉辰翁 評點本의 조선 전기 출판 현상에 대해서는 장인진,「원나라 劉辰翁 評點本의 조선전기 출판 현상」,『한국학논집』 7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4) 당윤희, 앞의 글; 장인진, 앞의 글 참조.

5) 갑인자 혼입 훈련도감자본의 번각본
6) 지방 관각 목판본

‘王十朋’ 集註 東坡詩選이라고 하지 않고 元 劉辰翁 비점 東坡詩註選이라고 한 것은 東坡詩選 편찬자가 ‘王十朋’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저간의 논의와 劉辰翁 평점의 학술적 가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5) 『蘇詩註選』의 편찬 및 체제에서 우선 중요하게 주목할 점은 『蘇詩註選』의 편차 순서가 『分類東坡先生詩』의 그것의 목차와 일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순서가 착종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2〉『蘇詩註選』과 『分類東坡先生詩』 편차 비교

蘇詩註選			分類東坡先生詩		
책	권	항목	권수	작품수	
1	1	紀行	1	92	
1	1	述懷	2	6	
1	1	詠史	2	8	분문 표시 안 됨 주는 초록됨
1	1	懷古	2	2	분문 표시 안 됨 주는 초록됨
1	1	古跡	2	37	분문 표시 안 됨 주는 초록됨
1	2	宮殿	3	17	
1	2	省宇	3	8	
		陵廟	3	4	
1	2	墳塋	3	3	
1	2	居室	3	14	
1	2	堂宇	3	41	
1	2	城郭	4	2	
1	2	壁塢	4	2	
1	2	田圃	4	8	
1	2	宗族	4	5	

5) 김보경, 「송원시기 소시 판본에 대해서」, 『중국문학』 60, 한국중국어문학회, 2009; 焦印亭, 『劉辰翁文學評點尋繹』, 中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婦女	4	11	표시 안 됨
1	2	仙道	4	16	
1	2	釋老上	4	40	
2	3	釋老下	5	16	
2	3	寺觀	5	59	
2	3	塔	6	4	
2	3	節序	6	43	
2	3	夢	6	10	
2	3	月	6	17	
		雨雪	7	46	『蘇詩註選』에는 누락
		風雷	7	8	『蘇詩註選』에는 누락
		山岳	7	36	『蘇詩註選』에는 누락
		江河	8	10	『蘇詩註選』에는 누락
		湖	8	26	『蘇詩註選』에는 누락
		泉石	8	31	『蘇詩註選』에는 누락
		溪潭	8	10	『蘇詩註選』에는 누락
3	6	池沼	9	3	
		舟楫	9	2	『蘇詩註選』에는 누락
3	6	橋梁	9	3	
3	6	樓閣	9	27	
3	6	亭榭	9	45	
3	6	園林	10	57	
3	6	果實	10	9	
3	6	燕飮上	10	27	
		燕飮下	11	17	『蘇詩註選』에는 누락
		試選	11	8	『蘇詩註選』에는 누락
		書畫上	11	33	『蘇詩註選』에는 누락
		書畫下	12	51	『蘇詩註選』에는 누락
		音樂	12	11	『蘇詩註選』에는 누락
		器用	13	10	『蘇詩註選』에는 누락

		燈燭	13	3	『蘇詩註選』에는 누락
		食物	13	5	『蘇詩註選』에는 누락
		酒	13	12	『蘇詩註選』에는 누락
		茶	13	12	『蘇詩註選』에는 누락
		禽鳥	13	13	『蘇詩註選』에는 누락
		獸	13	4	『蘇詩註選』에는 누락
		蟲	13	2	『蘇詩註選』에는 누락
		魚	13	6	『蘇詩註選』에는 누락
		竹	13	3	『蘇詩註選』에는 누락
		木	13	11	『蘇詩註選』에는 누락
		花	14	79	『蘇詩註選』에는 누락
		菜	14	5	『蘇詩註選』에는 누락
3	7	投贈	15	27	
3	7	戲贈	15	32	
3	8	簡寄	16	59	
3	8	懷舊上	16	23	
2	4	懷舊下	17	13	
2	4	尋訪	17	17	
2	4	酬答上	17	59	
2	4	酬答中	18	91	
4	9	酬答下	19	143	
2	5	惠貺	20	25	
2	5	送別上	20	39	
2	5	送別中	21	75	
4	10	送別下	22	56	
		慶賀	22	15	『蘇詩註選』에는 누락
4	11	遊賞	23	56	
		射獵	23	5	『蘇詩註選』에는 누락
4	12	題詠上	23	32	
4	12	題詠下	24	42	

		醫藥	24	3	
4	12	卜相	24	2	순서혼동
4	12	傷悼	24	49	순서혼동
4	12	絕句	24	21	순서혼동
4	12	歌	24	10	순서혼동
4	12	行	24	5	
4	12	雜賦	25	95	
4	12	謫居	25	33	

<표 2>를 보면『蘇詩註選』1책은『分類東坡先生詩』권 1~4, 2책은 권 5~6, 17~18, 20~21, 3책은 권 9~10, 15, 16, 4책은 권 19, 22, 23, 24, 25를 다루고 있다. 권 7~8, 권11~14는 다루지 않았다. 2책에서 권 5~6을 다루고, 3책에서 권 9~10, 4책에서는 권 7~8을 다룬 것에서 볼 수 있듯이, 母本과『蘇詩註選』사이에 분문 편차에 착종이 발생했다. 懷舊下는 2책에서 다루고 懷舊上은 3책에서 별도로 다루었고, 酬答 上・中, 送別 上・中은 2책, 酬答 下, 送別 下는 4책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이 점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李定稷이 분문을 세울 때, 주제를 선별하여 생략할 부분은(서화, 술, 차 등등) 배제하고 분문의 목차를 새롭게 세웠다. 두 번째, 李定稷이『分類東坡先生詩』의 주석을 초록하는 작업 중에 불상의 이유로 전질을 한꺼번에 작업하지 못하고 책을 구하는 대로 작업을 진행했다.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현재로서는 두 번째 가설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蘇詩註選』에서 母本을 다루고 있는 순서가 같은 책에서도 착종되고, 책 사이에서도 착종되며, 동일 분문을 2책과 4책에 나누어 편차하며 별도로 다루었다. 이것은 모본이 되는 조선 간본『分類東坡先生詩』에서 분문이 상중하로 나뉘어 별도의 권차로 편차되었던 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입수하여 주석을 검토하고 초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특정한 분류를 배제하고 분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없이 상당한 분문이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분문은 모본의 권차와 일치한다. 특정 권차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게다가 어떤 분류를 배재했다고 보기에는 동일한 분류에서도 어떤 것은 누락되고 어떤 것은『蘇詩註選』에 편입되어 있다. 예를 들면 권8에 江河, 湖, 泉石, 溪潭 등은 빠져 있고, 권9의

池沼만 포함되어 있다. 山川 개념을 선택 초록했다고 해서는 동일한 층위의 개념을 누락한 것이 매끄럽게 설명되지 못한다. 권8은 구하지 못했고, 권9만 구해서 우선 정리했다고 추측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懷舊 下 상은 2책의 4권에 편차되고, 懷舊 上은 3책의 8권에 편차되었는데, 모본에 선후가 분명한 것을 『蘇詩註選』에서 굳이 목차를 뒤집어, 그것도 연속되지 않은 권수, 별도의 책에 편차했다고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Ⅲ. 『蘇詩註選』의 특징과 성격

1. 學詩 심화를 위한 類書

우선 『蘇詩註選』은 책 제목이 蘇詩'選註'가 아니라 蘇詩'註選'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 책은 蘇東坡의 시를 싣고 시 이해를 위해 주석을 단 것이 아니라, 『分類東坡先生詩』의 주석만을 중점적으로 초록하였다. 按語가 종종 첨가되어 있으나 李定稷이 주석의 按語를 옮겨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6] 대략 이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亭榭**
> 奇章公, 牛僧孺也.
> 續漢書載燉煌張氏家傳曰: 扶風孟陀, 以葡萄酒一斗遺張讓, 卽得凉州刺史.
> ……
> 杜甫八分小篆歌, 苦縣光和尙骨立, 書貴瘦硬方通神
> 陽妃外傳云, 妃小字玉環[7]

---

6) 『蘇詩註選』의 본문에 "按"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李定稷의 按語가 아닌 경우가 많고, 직접 按語를 붙인 경우가 드물다. 예를 들어 "按 子桑非子來也, 豈先生誤記人名耶." (『蘇詩註選』 4책)의 경우 『分類東坡先生詩』 주석을 그대로 초록하면서 "次公按, 子桑非子來也 ……" 구절에서 "次公"을 누락시킨 경우다. "按王立之詩話云 東坡在黃時有一詩云."의 경우도 李定稷이 王立之의 『王直方詩話』를 찾아 읽어 蘇東坡의 일시를 찾은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역시 모본에 해당하는 『分類東坡先生詩』 주석을 그대로 초록한 것이다. 『分類東坡先生詩』와의 면밀한 대조가 필요하다.

7) 『蘇詩註選』 3책, 「亭榭」.

李定稷이『分類東坡先生詩』의 어떤 주석을 초록했는가를 한 마디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4책에 걸쳐 丹砂, 龍脛香 등 다양한 분야의 신이한 기문과 역사 전고 및 佛敎, 道敎의 경전 문구를 정리한 것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시 이해에 긴요하다고 생각한 주석을 초록하면서, 蘇軾 뿐만 아니라 평소 관심을 둔 杜甫, 李白 시의 긴요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도 정리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杜甫, 李白 외에도 古詩나 韓愈, 柳宗元 등 名家의 佳句를 초록한 내용도 많다. 우선 다음과 같이 詩法에 주목한 주석을 검토한다.

> 무릇 시의 4구 가운데 제1구와 제3구를 대구하고 제2구와 제4구를 대구하는 것을 扇對라고 한다. 이것은 白居易의『金針詩格』에서 나왔다. 그런데 梅堯臣이『續金針詩格』을 지으면서 전대 시인들의 다음 시를 인용하면서, …… 그 시격을 증명하였다. 지금 이 두 연은 바로 그 격이다.[8]

이 주석은 蘇軾의 <用前韻再和許朝奉>의 "邂逅陪車馬, 尋芳謝朓洲. 淒涼望鄉國, 得句仲宣樓" 구절이 扇對格으로 쓰였음을 설명하는 주석이다. 특히 2구와 4구의 謝朓의 <懷古人> 유명한 구절 "芳洲有杜若"과 王粲의 <登樓賦>를 점화하여 인명과 공간, 詩意를 중첩시키는 절묘한 대구를 이루었는데,『分類東坡先生詩』주석에서 이 부분을 "扇對格"으로 설명하였다. 詩法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李定稷이 이 주석을 주목하고 초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蘇詩註選』에는 주석에서 杜甫詩 시구절 인용한 부분을 초록하거나 杜甫詩를 설명한 부분을 초록한 것이 주목된다.

> 杜甫詩 下句에 "黃精無苗白日盛, 短衣數挽不掩脛"로 되어 있다. 黃庭堅이 말하기를 '천하에 杜甫詩 판본은 모두 "黃精"자로 되어 있는데, 오직 한 판본만 "黃獨"자로 되어 있다.『本草』「芋條」를 읽어보니 芋魁를 일명 黃獨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런 연후에 杜甫詩의 黃獨이 芋魁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선생께서 본 杜甫詩도 천하의 일반 판본과 같았을 뿐이로구나.[9]

---

8) 凡詩四句 以第一句對三句, 以第二句對四句, 謂之扇對. 蓋出於白氏金針云. 然至梅聖俞作續金針, 乃引前人詩有云(중략 昔時花下留連飮, 暖日夭桃鷺亂啼. 今日江邊容易別, 淡煙衰草馬頻嘶.) 以證其格. 此兩聯卽其格矣(李定稷,『蘇詩註選』4책,「酬答」중에서).

9) 杜詩下句云, 黃精無苗白日盛, 短衣數挽不掩脛. 黃魯直云天下杜詩本皆作黃精字. 唯有一本作黃獨.

이 시는『分類東坡先生詩』권23 <又次前韻贈賈耘老>의 “詩人空腹待黃精, 生事只看長柄械”의 주석을 초록한 것이다. 趙次公의 주석임을 표기하는 구절은 생략했다. 黃精은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신선의 약초이다. 인용한 杜甫詩는 杜甫의 곤궁한 시절 어려움의 심정을 대표하는 노래 <乾元中寓居同谷縣作歌> 구절이다. 곤궁한 杜甫가 黃精이라는 신선의 약초를 먹는다고 하면 문맥이 순하지 않다. 토란의 일종인 黃獨이어야 시상이 순하다. 秦州 同谷 시기 杜甫의 대표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다.

다만 杜甫의 원시에는 “黃獨無苗山雪盛”으로 “白日”이 “山雪”로 되어 있는데, 李定稷이 趙次公 주석의 오류를 그대로 두고 있다. 물론『分類東坡先生詩』이 주석 아래 “次公變山雪爲白日非是. 又杜詩云 三春濕黃精, 一食生毛羽. 又云 掃除白髮黃精在”라고 李定稷이 黃庭堅 시화 원본에 ‘山雪’로 된 것을 ‘白日’로 잘못 인용했으며, 杜甫詩에 “黃精”의 다른 용례가 있다는 식으로 이 주석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또 다른 주석이 부기되어 있지만, 李定稷은 杜甫詩 이해의 긴요처로 趙次公 주석의 의의를 인정했기에 위 주석만 초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東坡의 詩集에서 시를 선발하지 않고 주석을 초록한 것은 모본의 본래 편찬 취지와는 별개의 작업이었다고 하겠다. 그것은 李定稷은 본인의 관점에서 시선집을 정리한 성과라고 하겠다. 그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술을 편찬한다는 점은 그의 또 다른 저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蘇詩註選』에 序跋이 없기에, 그가 어떠한 취지에서 이러한 연구 작업을 진행했는지 비슷한 성격의 저술인『律髓刊誤精選』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이 책에서도 모본인『瀛奎律髓刊誤』의 편찬 의도와 별개로 시가 아닌 비평을 중점적으로 뽑아『律髓刊誤精選』을 편찬했다. 李定稷의『律髓刊誤精選』의 서문을 보면, 그가 본인의 관점에서 기존 시선집의 성과를 열심히 궁구한 뒤 그 성과를 저술로 정리하는 저술 과정을 수행했음을 잘 알 수 있다.

> 무릇 그 흠을 잡고 폄하한 것 가운데 볼만한 것이 없는 것들은 없애버렸다. 그런 까닭으로 원래 시 가운데 뽑을 만한 것도 거론하지 않았다. <u>이는 대개 비</u>

至讀本草芋條下云 芋魁一名黃獨 然後悟杜詩黃獨指言芋魁, 則先生所見杜詩, 猶天下之衆本耳(李定稷,『蘇詩註選』4책,「遊賞」중에서).

> **평을 뽑은 것이지, 시를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릇 한 사람의 생각을 뽑아 사사로이 책을 이루면 총명이 두루 미치지 못하고 논의가 천근하고 편협해지기 쉽다. 그런데 二家의 설을 가지고 짐작하고 절충하면 사람의 식견이 커지고 미치지 못한 부분은 보태질 것이니 이것이 내가 이 평을 즐겨 뽑은 까닭이다. 다만 紀曉嵐의 의논은 나와 계합하는 것이 아주 많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나의 서투름도 살피지 않고 억견을 붙였다. 이는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완비하기를 구할 따름이다.[10]

元 方回가 唐·宋 시기 律詩의 정수를 모은 시선집『瀛奎律髓』를 간행한 바 있다. 이 책은 江西詩派 문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唐·宋의 율시를 분문 별로 묶은 선집이다. 淸 紀昀은 方回의『瀛奎律髓』를 보완하고 오류를 바로잡아『瀛奎律髓刊誤』를 편찬하였다. 紀昀의「瀛奎律髓刊誤』는 方回의 비평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난외의 두주나 쌍행의 주석으로 자신의 관점을 적어두었다. 李定稷은 紀昀의『瀛奎律髓刊誤』가운데 비평을 중심으로 기사를 뽑아 자신의 按語를 첨가하여 2책의『律髓刊誤精選』을 편찬하였다.[11]

49권 10책이나 되는『瀛奎律髓』를 2책의『律髓刊誤精選』에 담기 위해 그는 시 '비평'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기사들만 초록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책을 편찬했던 것이다. 그 결과 모본이 되는『瀛奎律髓』의 작품 수록 비중이나 책의 성격과는 다르게 李定稷의 시학이 잘 드러나는 한 편의 저술이 되었다. 예를 들면 杜甫 시 비평에 대한 관심이 월등하게 높았고, 宋詩보다 오히려 唐詩 부분을 더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 變體와 拗體의 詩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드러낸 詩學 이론서가 되었다. 이처럼 李定稷의 詩學 연구 성과는 본래 연구 자료로 삼은 텍스트의 의도와는 다르게 독창적이면서도 심화적인 결과물로 나타났다.

---

10) "凡厥疵類幾貶之無與乎資覽者, 槩刪之, 以故厚詩之合選者, 亦弗擧, 玆盖選評, 非選詩也. 夫抽一人之思, 私自成著, 聰明未周而論議易褊, 執兩家之說, 斟酌而折衷之, 卽長人見解, 增益其所未逮. 此余所以樂選此評也. 顧曉嵐所論與余契者甚多, 而其不同者亦或有之. 不揆妄率附以臆見, 非自異也, 聊求備耳."(李定稷,「律髓刊誤精選序」,『연석산방문고』권4, 김제문화원, 2001, 470면).

11)『律髓刊誤精選』에 대해서는 백승호,「朝鮮時代『瀛奎律髓』간행과『律髓刊誤精選』」,『서지학보』30, 한국서지학회, 2006.『蘇詩註選』과 달리 이 책에서는 적극적으로 按語를 달고 본인 시학의 방법론을 피력하였다.

『蘇詩註選』도 『律髓刊誤精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分類東坡先生詩』 주석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분문 아래 초록해 두었다. 때때로 주석에서 인용한 杜甫, 王維 등의 유명한 한시 구절을 옮겨 적기도 하였다. 그 결과 『蘇詩註選』은 분문이라는 주제 아래 시 이해를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 놓은 筆記 내지 類書의 성격을 지닌 저술이 되었다.

2. 遞相祖述과 轉益多師 과정의 시학 연구서

『蘇詩註選』이 시 이해를 위한 유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성격의 抄書 작업을 한 것은 李定稷이 東坡詩를 궁리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한 작업이었다. 『分類東坡先生詩』 주석에서 『蘇詩註選』이 어떤 부분을 초록했는가를 살펴보면 東坡詩 이해에 핵심이 되는 주석을 중심으로 초록했다고 하겠다. 東坡詩 원문은 이 책에 적혀 있지 않지만, 『蘇詩註選』을 읽으면서 東坡詩 원문이 상호 참조되는 텍스트로서 활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몇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分類東坡先生詩』에 실린 주석의 분량은 상당하다. 『蘇詩註選』은 그 가운데 아주 일부의 주석만 초록했다. 주석이 초록되지 않은 작품들도 상당하다. 그 가운데 주석에서 詩法에 대한 설명, 杜甫 등 대가 시 이해의 관건이 되는 핵심 주석을 초록한 면모는 앞 절에서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그가 초록한 주석이 전체 시 이해에서 어떠한 관건으로 작용했던 것인지 <戲子由> 작품을 예시로 『蘇詩註選』에 주석 초록 양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소동파의 원시는 다음과 같다.

<戲子由>
宛丘先生長如丘 宛丘學舍小如舟
常時低頭誦經史 ①<u>忽然欠伸屋打頭</u>
斜風吹帷雨注面 先生不愧傍人羞
任從飽死笑方朔 肯爲雨立求秦優
眼前勃磎何足道 ②<u>處置六鑿須天遊</u>
③<u>讀書萬卷不讀律</u> 致君堯舜知無術
④<u>勸農冠蓋鬧如雲</u> 送老韲塩甘似蜜

⑤門前萬事不挂眼 頭雖長低氣不屈
餘杭別駕無功勞 畫堂五丈容旗旄
重樓跨空雨聲遠 屋多人少風騷騷
平生所慙今不恥 坐對披氓更鞭箠
道逢陽虎呼與言 心知其非口諾唯
居高志下眞何益 氣節消縮今無幾
⑥文章小技安足程 先生別駕舊齊名
如今衰老俱無用 付與時人分重輕

『分類東坡先生詩』에는 매 구절 상세한 주석이 부기되어 있어 작품 해석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蘇詩註選』에서는 일단 方朔, 秦優와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고에 대한 주석은 누락했다. 또한 유명한 <戲子由> 시이므로 "餘杭別駕無功勞" 시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蘇軾이 좌천되어 杭州 治中別駕로 내려가는 일이나 소철이 陳州(宛丘) 學官으로 있는 것에 대한 역사 사실적 주석도 모두 생략했다.

대신 ①대장부의 기개를 지키기 위해 미관말직을 사양하고 숭산으로 들어가 은거한 張彖의 고사,[12] ②莊子의 "心無天遊 則六鑿相攘" 고사, ③唐 沈全敎의 "評事不讀律 博士不尋章" 시 구절, ④ 班固의 <西都賦> "冠蓋如雲 七相五公", ⑤ 韓愈의 <贈張籍> "吾老嗜讀書, 餘事不掛眼." ⑥ 杜甫의 <貽華陽柳少府> "文章眞小技, 於道未爲尊" 여섯 개의 주석을 요약적으로 초록하였다. 초록된 주석을 보면, ①③의 경우는 시 이해를 위해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약간 빈도수가 적은 주석을 정리한 것이다.[13] ②④⑤⑥의 경우 유명한 고사이기는 하나 불우한 처지의 형제가 서로를 격려하며 기상 있는 풍격을 표현하기 위한 전고이다. 李定稷이 보기에 시의 주제로 그 지취가 합당한 주석으로 보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

시 학습에 있어서 박학한 주석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시상의 흐름이나 작자의 관건을 이해하는 데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핵심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때도 있다. 李定稷은 한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문인이 시 이해의 관건이 무엇

12) 唐進士張彖志氣高大, 未嘗低折於人, 嘗曰: 大丈夫有蓋世之志而拘於下位, 若立身於矮屋中, 使人擡頭不得, 遂拂衣遯於嵩山.

13) 張彖의 경우 『통감』의 양국충 관련 고사가 유명하다. ③ 沈全敎의 시는 작자 미상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시 이해의 핵심을 짚어주는 주석을 초록하였다.

李定稷이 여러 시학의 大家들의 시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체화시키려고 한 태도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점이 또한 주목된다. 그는 大家의 시에 나타난 실수를 다른 주석가나 비평가들처럼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그 시인이 그렇게 쓴 연유를 파악하여 시 이해를 심화시키려고 한다든지, 그 연유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판단을 유보하며 大家의 시법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였다. 蘇軾 시에 나타난 平仄의 착오에 사례에 대해 다음 주석을 초록해 두었다.

> 蒼茫 두 글자는 고인이 모두 이것을 평성자로 사용했는데, 선생께서는 측성으로 사용하셨다. 蒼字는 『廣韻』에서 麁자와 朗자의 반절음이고, 茫字는 上聲의 莽字로도 去聲의 漭字로도 모두 거두어지지 않으니 선생이 사용한 용례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이로써 博學多聞한 이의 의견을 기다린다.[14]

이러한 그의 시학 연구 방법은 어느 문파나 입론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핵심을 파악하며 시를 정확하게 읽어가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律髓刊誤精選』에서도 확인되었지만, 李定稷은 시를 치밀하게 이해했던 문인이었다. 『蘇詩註選』의 시 이해 방법은 李定稷의 다른 저술 「六絕義解」를 연상시킨다.

1895년 3월 李定稷이 梁在瑩을 위해 杜甫의 <戲爲六絕句>를 적어주고 이 시의 뜻을 자세하게 풀이해 준 「六絕義解」를 써서 주었다. <戲爲六絕句>는 두보가 후대 사람들이 庾信이나 初唐四傑 등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지은 시이다. 질탕하고 풍자하는 뜻을 지닌 시어가 많아서 재미 삼아 지어본다는 '戲'자를 제목에 쓴 것이다.[15] <戲爲六絕句>는 諸家의 주석을 하나의 책으로 묶을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시로[16] 杜甫의 이 작품 이후로 시로써 시를 논하는 論詩絕句가 시론을 펴는 하나의 문학 비평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시사적 의의가 있다.[17] 하지만 시의 정확한 해석은

---

14) 蒼茫兩字 古人用之皆是平聲 而先生所用乃是仄聲 蒼字廣韻音麁朗切 茫字上聲之莽去聲之漭皆不收 不知先生用之所出 以竢博聞(李定稷, 『蘇詩註選』 1책, 「紀行」 중에서).

15) "此爲後生譏誚前賢而作, 語多跌宕諷刺, 故云戲也."(仇兆鰲, 『杜詩詳註』 권11, 中國: 中華書局, 1989, 897면).

16) 郭紹虞, 『杜甫戲爲六絕句集解 元好問論詩三十首小箋』, 中國: 人民文學出版社, 1998.

의견이 분분하다. 李定稷은 이 시에 대해 시를 엄밀하게 분석하며 읽을 것을 제안하며 「六絕義解」에서 같이 말하였다. 「六絕義解」는 두보의 「戲爲六絕句」를 먼저 쓰고, 작품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적어두었는데,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前賢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의심하지 말라.
> 번갈아가며 본받으면 되지 다시 누구를 먼저 한단 말인가?
> 거짓된 체를 잘라내서 풍아에 가까워진다면
> 점점 더 많아진 스승이 바로 너의 스승이라네.[18]
> ……
> 未及前賢更勿疑 遞相祖述復先誰
> 別裁僞體親風雅 轉益多師是汝師

> 이는 두보의 <六絕句> 시이다. 대개 시의 뜻을 말하면서 읽는 이가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바로 후세 사람들이 句讀法이 전적으로 통창함을 위주로 하고 깊이 곱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杜甫의 시를 읽음에 한두 편 읽지 않았는데 문득 싫증을 내니, 말이 통창하게 내려가 아주 통쾌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衰颯한 기운이 그에 따라 생겨날까 두려워한다. 子潤이 나를 따라 시를 지으므로 이 「六絕義解」를 써준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 ……
>
> 제6구에서 "遞相祖述[19]"라고 한 바는 굴원·송옥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楊·王·盧·駱의 공교로움을 얻은 이후, 이 네 선생을 통해 다시 진일보해야지, 망령되이 단계를 뛰어넘어 俗體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른바 "轉益多師"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20]

---

17) 論詩絕句를 지은 대표적인 작가로는 宋의 吳可, 戴復古, 金의 王若虛, 元好問, 明의 李濂, 方孝孺, 淸의 趙翼,王士禎, 袁枚 등이 있다(陳伯海,『唐詩學史稿』, 中國: 河北人民出版社, 2004, 131면).

18) 인용문은 李定稷의 「六絕義解」에 따라 杜甫의 「戲爲六絕句」 제 6수를 번역한 것이다.

19) 李定稷의 풀이가 諸家의 설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杜臆〉〉에서는 이 구절을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베낀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독두심해』는 조술을 전현이 사승관계가 있으니 이를 따라간다는 것으로 보았다. 전겸익은 "흘러가면서 근원을 잃는다(沿流而失源)"라고 보았다.

20) 此老杜六絕句詩也. 蓋道詩意而讀者難於領會, 正坐後人句法專主條暢不耐咀嚼, 以故讀杜詩, 不一二便輒厭看, 殊不知言下條暢非不快意, 而但恐衰颯之氣隨以生焉, 子潤從余作詩, 故書此六絕義解.

생략된 부분 가운데 제3수에 대한 해석은 시를 치밀하게 읽는 방법론의 모범을 제시한 바 있다. 제6수의 해석이 제가의 설과 다른 李定稷의 創見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이 구절 해석에 관해 諸家의 설은 "요즘 사람들이 서로서로 베끼는데 누굴 앞세우겠는가"로 보거나 錢謙益은 "여러 대 거치면서 조술해 오면서 본류를 잃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李定稷은 "祖述"의 대상을 庾信, 初唐四傑 등으로 보아 이들을 거쳐서 國風과 離騷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杜甫의 <戲爲六絕句>를 시를 학습하거나 창작함에 있어서 근래의 것이라 무시하지 말고 지금의 시가 國風·離騷로부터 연원해 왔으므로 가까운 데서부터 단계적으로 배우되 國風·離騷와 어긋나는 부분을 버리면 수많은 시 스승이 있게 된다는 해석을 도출하였다.

『蘇詩註選』은 『律髓刊誤精選』, 「六絕義解」와 함께 이러한 李定稷의 시학 방법론을 실천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언뜻 보면 『分類東坡先生詩』의 주석 가운데 흥미로운 것들을 분문에 따라 초록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말했듯이 원래 시 이해를 위한 관건이 되는 핵심 주석에 대해 고민하고 주석의 내용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다른 문헌들도 광범위하게 검토한 李定稷 시학 연구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당대의 주도적인 시론에 흔들리지 말고 시학 연구를 위해 여러 대가의 시학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律髓刊誤精選』 按語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살펴보건대, 근저가 얕고 깊다는 것은 학식을 말하는 것이고 조예가 높고 낮다는 것은 공부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범범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먼저 近代의 名家로부터 明·宋으로 거슬러 올라가 또 五代를 거슬러 점차 漢·魏 시에 이르고 國風과 雅·頌에 이른 뒤 다시 國風과 離騷로부터 蘇武와 李陵으로 내려와 또 六朝·三唐을 거쳐 近代에까지 이른 뒤 무슨 까닭으로 변했는지 살피고 좋게 변한 것과 나쁘게 변한 것을 가려낸다. **여러 차례 거슬러 올라갔다가 여러 차례 내려와서 가슴 속에서 융회가 되면 심력이 절로 장해지고, 안광에 절로 방불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또 모름지기 천 번 두드리고 만 번 단련하여 완전히 녹아들어 흔적이 없게 되어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을 인습**

(중략) 第六句遞相祖述云者, 言欲方駕屈宋, 必先得楊王盧駱之工然後, 由此四子而更進一步, 不可妄意躐等, 歸於俗體, 所謂轉益身師者, 卽此也(李定稷, 「六絕義解」, 수경실 소장본).

> **하지 않게 되면 일종의 辭氣가 있게 되어 一家만 고수하여 분수도 모르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비견할 바가 아니다**. 근저의 얕고 깊음과 조예의 높고 낮음은 여기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저 明나라 嘉靖·隆慶 연간 諸子들은 전적으로 옛것을 모의하였지만 아직 융화하여 흔적이 없게끔 하지는 못한 자들이고, 근대에 眞과 性情의 설을 말하는 諸子들은 또한 분수도 모르고 스스로 자랑하여 떨치고 일어나는 힘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21]

근대의 명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명청부터 국풍과 이소의 시까지 두루 섭렵한 뒤 그 이후엔 역방향으로 국풍으로부터 근대로 내려오면서 동이와 변천의 선악을 살피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능숙하게 하여야지 일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는 요지의 글이다. 이처럼 그는 원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당대의 선입견에 좌우되지 않고 끊임없이 시학 연구를 계속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蘇詩註選』이라고 이 저술의 성격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 외 비슷한 성격의 그의 여타 저술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책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蘇詩註選』은 『律髓刊誤精選』, 「六絕義解」와 함께 李定稷 시학 연구의 정수를 정리한 저술이다. 그는 평소 시에 공을 들여 梅泉 黃玹이 걱정을 할 정도였다. 그의 문집을 보면 杜甫 시에 차운한 시가 많고 唐宋 諸家의 시에 차운한 시 역시 많다. 그리고 錢謙益의 『牧齋集』,[22] 朱彝尊의 『竹垞集』, 王士禎의 『帶經堂集』, 權韠의 『石

---

21) "按根柢淺深, 以學識而言, 詣力高下, 以工夫而言. 此不可泛說, 須先從近代名家, 泝而明宋, 又泝而五代, 漸至於漢魏, 而達于風雅. 復自風騷, 沿而蘇李, 又沿而六朝·三唐以至于近代, 察其何故而變, 又辨其善變與不善變, 婁泝婁沿, 融會于胸中, 則心力自壯, 眼光自有所彷彿, 又須千擣萬鍊, 融化無迹, 的是自我不襲於人, 則有一等辭氣, 非膠守一家, 夜郎自大之所可比擬也. 根柢淺深, 詣力高下, 於此可定. 如明嘉·隆諸子之專意摹古者, 其未能融化無迹者也. 如近代諸子眞性情之說, 又夜郎自大, 無振作之力者也"(李定稷, 『律髓刊誤精選』 卷29 旅況類, 陳子昂 「晚次樂鄉縣」詩 按說, 수경실 소장본).

22) 〈拈牧齋集得時字〉, 〈卽景拈牧齋詩韻〉, 〈翌日復拈牧齋詩韻〉, 〈夜坐拈牧齋詩韻〉, 〈拈牧齋詩韻贈姜玉下〉, 〈除夕拈錢牧齋除夕韻〉.

洲集』, 李尙迪의 『恩誦堂集』, 姜瑋의 『古歡堂集』, 黃玹의 『梅泉集』 등 지방에서 활동한 문인으로서는 광범위한 독서 범위를 보여준다. 특히 시에 있어서 拗體와 吳體, 江西體, 齊梁體 등을 의식적으로 시험한 작품을 여럿 남기고 있어서 李定稷이 시의 형식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 학습 과정에서 『蘇詩註選』은 李定稷 시학의 방법론을 실천한 여러 결과물 중의 하나였음을 밝히고 그 특징과 의의를 정리해 보았다. 그는 연구 자료로 삼은 텍스트를 자신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연구하여 그것을 재구성했다. 그리하여 원 텍스트와 별도의 독창적이면서도 심화적인 결과물로 도출되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蘇詩註選』도 앞서 살펴본 『律髓刊誤精選』 按語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그가 시를 이해하기 위해 천 번 두드리고, 만 번 단련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투고일: 2021.07.20 심사일: 2021.08.19 게재확정일: 2021.09.03

참고문헌

李定稷,『刊誤精選』, 수경실 소장본
_____,『蘇詩註選』, 개인 소장본
_____,「六絕義解」, 수경실 소장본
_____,『石亭集』, 신연활자본
_____,『石亭 李定稷 遺稿』, 김제문화원, 2001

陳伯海,『唐詩學史稿』, 中國: 河北人民出版社, 2004
焦印亭,『劉辰翁文學評點尋繹』, 中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구사회,「石亭 李定稷의 논시시 연구-<희위이십사절구>를 중심으로」,『국제어문』43, 국제어문학회, 2008
_____,「『刊誤精選』의 찬술 과정과 비평적 특성」,『국어국문학』152, 국어국문학회, 2009
김보경,「송원시기 소시 판본에 대해서」,『중국문학』60, 한국중국어문학회, 2009
김영은,「石亭 李定稷의 史論 산문 고찰-주제 의식을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2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4
노요한,「조선초기 관찬 주해서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당윤희,「朝鮮刊 蘇軾 詩集 板本 小考-『增刊校正王壯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를 중심으로」,『중어중문학』45, 한국중어중문학회, 2009
박은정,「石亭 李定稷 文論 재고-법 인식을 중심으로」,『국제어문』43, 국제어문학회, 2008
백승호,「조선시대『瀛奎律髓』간행과『律髓刊誤精選』」,『서지학보』30, 한국서지학회, 2006
심경호,「石亭 李定稷과『詩經』」,『국제어문』43, 국제어문학회, 2008
장인진,「원나라 劉辰翁 評點本의 조선전기 출판 현상」,『한국학논집』7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최영성,「石亭 李定稷 유고 해제」,『한국사상과 문화』1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ON Seogjeong Yi Jeongjig's *Sosijuseon*

Baek, Seung-ho

This paper is a comprehensive summary and introduction of Seogjeong Yi Jeongjig's *Sosijuseon*. By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system of *Sosijuseon*, the book was modeled after *Bunlyudongpaseonsangsi* and abstracted it with focusing on annota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deviation and content structure of the book, he obtained *Bunlyudongpaseonsangsi* at different times in part. It seems that the annotations were carefully reviewed and the abstract work was done. This book is a kind of notebook for understanding poetry. The abstract was centered on the commentary, not the poem. In the course of his poetic research, he re-understood and re-edited the original manuscript from his point of view and compiled a new work. He critically reviewed Banghoi's *Yeonggyuyulsu* and Giyun's *Yeonggyuyulsugano*, and By abstracting the words of criticism. He wrote *Yulsuganojeongseon*. A similar case is the case with *Sosijuseon*, meaning that meaningful information is extracted from the commentary. Yi usually understood poetry rigorously and analytically, *Yugjeoluihae* is a prime example. He compiled the *Sosijuse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is own point of view and referencing the poetic theories of various scholars. His poetic research methodology can be summarized as a process of alternately going back and exploring the source with finding more and more teachers.

Key Words : Yi Jeongjig(李定稷), Seogjeong(石亭), *Sosijuseon*(『蘇詩註選』), *Yulsuganojeongseon*(『律髓刊誤精選』), *Yugjeoluihae*(「六絕義解」), *Bunlyudongpaseonsangsi*(『分類東坡先生詩』)